

28. [A]~[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나무라던 일을 생각했다'를 보면,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 인물의 표정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정 인물이 추측한 다른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C]: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특정 인물이 다른 인물의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했지만'과 '웬일인지' 사이를 보면, 괄호를 사용하여 작중 인물들의 상황에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 '받는다'와 같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특정 인물이 관찰하고 있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2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아주머니가 딸이 완쾌되리라는 소망을 품는, ㉣은 ㉠에서 품은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이다.
- ② ㉠은 아주머니가 병원에 머물렀던 기간을, ㉣은 아주머니가 병원을 떠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③ ㉠은 아주머니와 딸이 대립하는, ㉣은 ㉠에서 발생한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시점을 특징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④ ㉣은 아주머니가 ㉠에서 시작한 딸의 치료를 제삼자의 개입으로 중단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⑤ ㉣은 아주머니의 결정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은 그 결정이 일시적으로 유보되는 시간의 표지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3병동」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도시에서 주변부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인정(人情)을 지닌 인물을 통해 인간성 회복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다. 또한 지식인으로 표상되는 인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간병하는 다른 인물에게 충격을 받으며 각성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시속에 물들지 않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 지닌 가치를 암시한다.

- ① 강남옥이 '현대 의학 이론'으로 '진단'할 수 없는, '병을 겁내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합리성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찾기 힘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김종우가 '거짓 이기주의'에 의해 '본질적인 것'이 '말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실과의 단절을 염원하는 인물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③ 김종우가 '어떤 막연한 정신적 회의'에 사로잡히고 '여태까지 지'냈던 '궁지 따위가' 무너진다고 느끼는 것에서, 지식인으로 표상되는 인물이 각성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군.
- ④ 아주머니가 '대신해서 곧잘 죽을 쑤어 주'며 '시골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있는 호의'를 보여 주는 것에서, 비극적 현실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인정 어린 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아주머니와 딸이 '더 건딜 돈이 없'는 '3등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퇴원을 하고' 마는 것에서, 가난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엿볼 수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 가는 두 불의 도화(桃花)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희색이 되어 가는 두 귀밀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白雪)이 될까요.

㉣머리는 희어 가도 마음은 붉어 갑니다.

피는 식어 가도 눈물은 더워 갑니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 한용운, 「거짓 이별」 -

(나)

1

당신이 날 사랑해주시니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다 언제 내 「가 이런 사랑을 받으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밥도 안 먹 [A]고 잠도 안 자고 당신 일만 생각했습니다」

노을빛에 타오르는 나무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저도 나의 사랑은 저물지 않고 나로 하여 ㉦언덕은 불 붙었습니다 바람에 불리는 풀잎 하나도 괴로움이었습니다